

2004년 추계세미나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입니다

- 호스피스 연계망구축 -

일 시 : 2004년 11월 6일(토) 오후 1시 - 5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주 최 : 한국호스피스협회

후 원 : 보건복지부

한국호스피스협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세미나

2004년 11월 6일(토) /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1부> 총회

사회 : 전재규 이사장

13 : 00 ~ 14 : 00

찬 양	이화랜드벨앙상블
성원 보고	서 기 최영순
개회 선언	이사장 전재규
기 도	부회장 김승주
특 송	하늘다리 백합합창단
전회의록낭독	서 기 최영순
감사 보고	감 사 김 임
회계 보고	회 계 김옥겸
각부사업보고	각 부 부 장
임원 개선	사 회 자
임 명	지역별지부장·직능별분과장
광 고	사 회 자
폐 회	

14 : 00 ~ 14 : 20 coffee break

<2부> 추계학술세미나

사회 : 송미옥 부회장

14 : 20 ~ 14 : 30 개 회 사	전재규 이사장
14 : 30 ~ 14 : 50 영 상 자 료	각 기관활동
14 : 50 ~ 15 : 00 축 사	노홍인 과장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15 : 00 ~ 15 : 30 주 제 발 표	원주희 목사 (샘물호프피스선교회 대표/본회이사)
15 : 30 ~ 15 : 40 질 의 및 토 의	
15 : 40 ~ 15 : 50 인 증 서 수 여	김수지 회장
15 : 50 ~ 16 : 40 제10회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인증시험	
16 : 40 ~ 17 : 00 폐 회	

축 사

존경하는 한국호스피스협회 김수지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호스피스 전문가 및 종사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한국호스피스협회 2004년도 추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죽음을 앞두고, 하루하루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말기환자들을 돌보며,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전국의 호스피스 전문가와 종사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6만 3천명이 넘는 말기 암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환자들이 부적절한 치료로 또는 치료의 기회를 받지 못하여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으로 도우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는 총체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관계자들이야말로 사회를 밝게 하는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호스피스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년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호스피스서비스모형을 개발하고 호스피스 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 등을 마련하여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더욱 성숙한 호스피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도 이와 함께 검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호스피스체도가 도입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과 같이 잔여수명을 6개월 전후로 남겨 두고 있는 이들에게 행복한 죽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주는 호스피스 활동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 되도록 여러분들이 전인차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호스피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을 한데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때에 개최된 학술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호스피스는 생명운동입니다”라는 운동을 펼쳐 오신 전재규 이사장님, 김수지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장

노 홍 인